

보도일시 | 2024년 6월 25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 경영지원팀

담당자 | 김도훈

연락처 | ☎052-226-0019

장생포 아트스케이 1차 문화강연 성황 및 2차 강연 개최

- 6월 15일 임택수 작가의 '오늘의 나무는 어제의 그 나무가 아니다' 강연 성황
- 6월 28일 민바람 작가의 '순우리말에서 찾은 위로와 용기' 강연 개최



<현장 사진>

고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장생포아트스케이에서 지난 15일 임택수 소설가의 '오늘의 나무는 어제의 그 나무가 아니다' 강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작가의 경험과 저서 '김섬과 박혜람'에 대한 에피소드를 다루었다. 강연은 질의응답 형식을 주로 다루어 관객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돋보이는 강연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가들이 관람객으로 참여하여 울산 예술에 대해 폭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저서 ‘김섬과 박혜람’에는 장생포의 문화, 장생포문화창고, 창작스튜디오131, 할머니 고래카페 등에 대한 내용이 간접적으로 담겨 있어 많은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임택수 소설가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장생포 아트스케이 4기 입주작가 출신으로 올해 2관왕을 차지하여 문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이다(동아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당선, 세계일보 주최 공모 세계문학상 수상). 5월에는 「김섬과 박혜람」(세계문학상 당선작)을 출간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자의 속도’의 첫 번째 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 강연은 민바람 작가의 ‘순우리말에서 찾은 위로와 용기’로 6월 28일(금)에 진행된다.

민바람 작가 강연은 낱말이 주는 말뜻과 말맛에서 나아갈 길을 찾은 작가의 경험을 나누며, 저서 「낱말의 장면들」을 토대로 삶을 위한 우리말 처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현재 모집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장생포 아트스케이 사무실로 문의(052-276-9675)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 조다솔(☎ 052-276-967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20.

등록번호 : 고래문화재단-5628

결 재	★대리	상임이사
	김도훈	전결 06/20 대결전순배